

2016 부활절 특별 예배드라마

아버지의 집으로



2016년 부활절 예배드라마는 분열된 관계에 처해있는 우리가
모두 한 마음을 가지고 **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**드리기 위해서는
먼저 깨어진 우리의 관계 가운데 참 용서와 화해가 이루어져야 하는데,
그것은 세상적인 조건과 힘의 원리가 아닌 **영적인 원리**,
즉 십자가와 부활의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,
너무나도 고되고 험난했던 야곱과 요셉의 전 인생을 통해서 말하고자 합니다.
이 예배를 통해서 교회와 세상 속의 모든 크고 작은 갈등과 분열의 문제가,
마침내 **요셉과 그 형제들처럼 참 화해와 화합**으로 다시 새롭게
시작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출발점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.
그리고 이 은혜의 예배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.

2016.3.27(주일)

1부 | 9시 2부 | 12시 3부 | 3시 * 초청예배

장소 | 주님의교회(정신여고 대강당 - 송파구 잠실동 50-4)

* 종합운동장(2호선)역, 3번 출구 정신여고 운동장내 주차가능.

문의 | 02)416-5181

 주님의교회

야곱, 요셉과 예수님 이야기

이번 예배드라마에서 주요 인물들은 공통적으로 '상실의 아픔'을 경험하게 됩니다. 그것은 말할 수 없는 큰 고통이자 죽음과 같습니다. 그러나 상실은, 죽음은, 하나님 안에서 새 생명과 성장으로 다시 빛을 낼 수 있습니다. 이것이 바로 고난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믿음의 원리입니다.

우리 스스로 만들어 낸 구원의 삶이 아니라,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해 인도되는 은혜의 삶은 분열된 우리 가운데 모두를 하나로 화합시키는 근원의 힘이 됩니다. 요셉은 그의 전부였던 육신의 아버지, 야곱을 떠남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되었고, 그 영적 아버지,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보존하는 놀라운 역사를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, 깨어진 형제들과의 관계에도 새 생명을 주심으로 참 화해와 화합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하십니다.

야곱과 요셉이 이런 아픔을, 위기를 경험할 때마다 말씀으로 임하신 하나님은 마침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해 고난을 받게 하십니다. 요셉의 형통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서 오듯이 우리의 형통은 예수님의 온전하신 섬김에서 이루어집니다.

요셉의 삶 전반에 깔려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. 요셉의 고통을 대신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는 예수님은, 우리 모두가 상실감을 통해서 느낄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은 버림받은 존재라는 감당할 수 없는 아픔을 온전히 대신해 주십니다.

“나의 하나님, 나의 하나님,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”

십자가 위에서의 예수님의 통곡이 바로 요셉을 대신한 예수님의 부르짖음이셨으며, 더불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대신한 부르짖음이십니다.

예수님의 그 사랑은 감히 죽음도 막을 수 없는 사랑이었기에, 다시 부활하셔서 요셉을 총리로 일으켜 세우시듯 우리 또한 각자의 사명의 자리에 새롭게 세워주십니다.

예수님의 그 사랑의 은혜를 깊이 체험한 요셉은 이미 형제들을 용서했고, 후에 그들을 만났을 때 그들과 참으로 화해할 수 있었습니다.

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
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
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
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
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